

(가족여행지/가로수길)

플라타너스길 · 메타세쿼이아길

김동정 수필가 · 여행작가

춘 분을 지나 한식 무렵이면 완연한 봄이다. 길가의 가로수들도 새잎을 틔울 시기가. 사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의 한가운데, 가로수길을 찾아 일상의 시름을 달래볼 일이다. 가로수길을 거닐며 사색에 빠져도 좋고, 차를 몰고 짹짹 그 길을 달려도 좋다. 코끝을 간질이는 자연의 향기는 찌든 몸과 마음을 말끔히 헹궈준다. 하늘과 들판을 향해 툭 터진 가로수길. 이 화사하고 온화한 봄이 가기 전에 가로수길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자. 연인끼리 직장 동료끼리 드라이브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가로수길 2곳과 주변 여행지를 소개한다.

▲ 청주의 관문, 플라타너스길과 무심천

길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청주땅은 또 다른 매력을 안겨준다. 이렇다할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묘하게 마음을 잡아끄는 까닭이다. 청주는 어디서나 쉽게 갈 수 있는 교통요지이다. 땅길(중부와 경부고속도로), 하늘길(청주공항), 철길(청주역)이 고루 트여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다. 충청권의 대표 도시답게 언제 가도 활력이 넘친다. 여

기에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복 받은 땅이다.



▲ 청주(청주의 관문인 플라타너스 길은 사철 독특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청주로 들어서면 맨 먼저 가로수 길을 만나게 된다. 청주의 명물이 된 가로수 길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에서 가경천 죽천교까지 이어져 있다. 총 길이 4.4km. 잘 포장된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심어진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는 사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파리를 다 떨구고 하얀 눈을 머리에 인 겨울도 그 모습이 독특하다. 20m 높이의 울창한 수목 1,500여 그루가 빚어내는 풍경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정적이다. 1948년에 심은 플라타너스는 흰칠한 키와 굵은 둥치가 멋을 한층 살아나게 한다. 오가는 사람들은 이 플라타너스를 보며 잠시 자연과 하나가 된다. 전국의 진입로 중 가장 아름답다는 평을 듣는 것도 그럴 듯 하다는 생각이다. 이 가로수 터널은 종종 달력 사진이나 CF에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하고, 옛 영화 ‘만추’,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장으로도 유명세를 탔다. 청주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가로수 길은 아름다운 거리숲 대상을 받기도 했다. 새 잎이 돋는 봄이면 가로수는 비로소 생기를 찾는다. 급회전 구간과 횡단보도가 여럿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길이가 짧아 아쉬움이 든다면 가로수길 중 가장 아름다운 휴암휴게소 부근 2km 구간에서는 U턴을 할 수 있다. 감시 카메라 주의.

청주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무심천도 가로수 터널 못지 않게 아름답다. 사철 독특한 색깔로 옷을 갈아입는데, 청주 시민들의 휴식처요 자연학습장이다. 한자말에서 보듯 무심천(無心川)은 욕심 없고 유순한 청주 사람들의 심성이 그대로 녹아있다. 생태 복원으로 다시 살아난 무심천엔 물고기가 눈에 띄게 늘었고 언제부턴가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봄이면 유채꽃, 벼꽃이 만발하고, 여름의 끝자락엔 메밀꽃이, 가을이면 갈대 흔들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곳곳에 쉼터와 놀이동산을 갖추어 놓았고, 하천 옆으로는 자동차길도 열려 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숲 새 없이 내닫는 자동차 때문에 하천 생

태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무심천은 청원군에서 발원해 남서쪽으로 흐르고 흘러 남일면 상대리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튼 다음, 청주시내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미호천에 합류, 다시 금강을 거쳐 서해에 이르는, 전체 길이 34.5km의 생태하천이다. 요즘 어느 하천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만 무심천도 한때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하천을 거슬러 오르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해마다 찾아오던 철새들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문명이 낳은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여름이면 먹을 감고, 겨울이면 썰매를 탔으며,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했다.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무심천은 다행스럽게도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옛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물고기와 철새들이 보이고 철마다 들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무심천 살리기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 사람들에게 무심천은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책과 같은 존재다. 무심천이 생긴 것은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서전도(湖西全圖)중 청주목 지도에 붓글씨로 무심천이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이 지도에는 청주읍성이 또렷이 나와 있고, 산천과 행정구역 등을 표기해 놓았는데, 운천동 일대 봉림숲(북숲) 뒤편으로 흐르는 냇물을 무심천이라 적어 놓았다.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세워져 있는 유래비에는 무심천이 통일신라-남석천(南石川), 고려-심천(沁川), 조선-석교천(石橋川), 대교천(大橋川), 일본 강점기에는 무성뚝으로 불려왔다고 적혀 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에는 현재의 무심천을 대교천(大橋川)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교란 큰 다리란 뜻인데 현재 육거리시장 부근 땅속에 묻혀있는

남석교(南石橋)를 가리킨다.

무심천을 돌아보고 우암순환도로나 상당산성 쪽으로 차를 몰아보자. 우암우회도로는 마치 서울의 남산순환도로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드라이브의 재미를 더해준다. 상당산성으로 오르는 약 2km 정도의 길도 운치와 멋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산성 위에서 바라보는 청주는 건물들의 조화가 참으로 절묘하다. 바람의 맛, 하늘빛이 다르다. 상당산성에는 동북암문, 서북암문 등 두 곳의 비밀의 문이 있다. 둘레 4.2km, 높이 3-4m에 이르는 상당산성(사적 제212호)은 벽면을 수직으로 잇고 그 안쪽에 토사를 쌓아 올린 이른바 내탁공법으로 축조하였다. 동, 서, 남쪽에 3개의 문을 두었고, 3문 모두 문루를 갖추고 있다. 예전에는 성 안에 5개의 연못과 샘, 사찰 등이 있었다고 전해오나 현재는 커다란 저수지 하나만이 남아 있다. 시가 산성을 사적지로 지정한 뒤 마을의 가옥들을 한옥기와집으로 바꿨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산성 안 한옥 마을에 가면 고풍스런 기와와 지게, 낫, 호미, 물레방아 등을 볼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토속 음식을 판다.

▶여행수첩(지역번호 043)=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으로 나오면 바로 가로수터널과 연결된다. 가로수터널-무심천-우암순환도로-상당산성-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무심천-우암산우회도로-상당산성(주차 시설-210여대 수용), 청주 시내에서 상당산성 한옥마을까지 시내버스 수시 운행, 20분 소요. 상당산성 한옥마을 안에 상당집(오리한방백숙 28,000원, 묵밥 4,000원, 252-3291), 진미(엄나무백숙 25,000원, 토종닭감자탕 20,000원, 252-7860), 제일장(한방오리백숙 30,000원, 도토리묵 4,000원, 254-3979), 신라장(산채비빔밥, 닭백숙, 장어구이, 256-8972) 등 토속음식을 파는 식당이 많다. 청주 시내에 있는 청주관광호텔(264-2181), 명암파크관광호텔(257-7452) 등 숙

박시설 이용. 청주시청 문화관광과(220-6162, 6170), 상당산성관리사무소(220-6174), 청주고속버스터미널(232-4800), 시외버스터미널(235-6543), 청주역(231-7788), 청주공항(264-4441).

◆담양 대나무숲과 메타세쿼이아길

담양 하면 대나무, 대나무 하면 담양이 떠오른다. 호남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를 번갈아 타고 담양으로 간다. 담양은 어딜 가나 대나무를 만날 수 있다. 마을이 있는 곳에 대숲이 있고, 대숲이 있는 곳엔 마을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이다. 담양 여행은 크게 대나무와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읍내 쪽과 호수와 산이 있는 북부, 문화유산이 즐비한 남부로 나뉘어 돌아보면 경제적이다. 한 지역을 돌아보는데 만나절쫂름거리므로 1박 2일 정도는 잡아야 한다.

길손은 먼저 죽림욕장(대나무 체험학습장)으로 간다. 대숲을 거닐며 몸과 마음에 달라붙은 욕심을 비워내기 위함이다. 금성면 봉서리 병풍산 줄기 고지산 아래에 펼쳐진 대나무골 테마공원(www.bamboopark.co.kr). 담양읍에서 24번 국도를 타고 순창 쪽으로 가다 '석현교' 다리를 지나 표지판을 보고 오른 쪽으로 빠지면 된다. 그림 같은 담양호를 중심으로 추월산과 금성산성이 자웅을 겨룬 곳에 거대한 대숲이 들어섰다. 경치가 아름다워 서일까? 각종 CF 촬영과 영화 청풍명월, 흑수선, 드라마 다모, 여름향기 촬영지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다. 이곳의 대나무숲은 담양 최대를 자랑한다. 개인(대표 신복진)이 운영하는 대나무 공원으로 유료이긴 해도 모든 게 만족스럽다. 부챗살처럼 펼쳐진 3만여 평의 야산에는 맹종죽과 왕죽, 분죽, 조릿대(산죽) 등 각양각색의 대나무가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다. 어느 순간 바람이 쇠아아~댓잎을 건드리고 지나간다. 울울창창한 대숲 길을 거닐며 즐기는 죽림욕은 산에서 즐기는 삼림욕과 무엇이 다



른가. 대숲에서 번져오는 죽향을 폐부 깊숙이 들이 마신다. 머리가 맑아지며 힘이 솟는다. 이곳에서는 청량한 대숲 바람을 마시며 시원한 삼림욕과 죽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입장료 어른 20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의: 061-383-9291.

대나무골테마공원에서 나와 읍내 향교리에 있는 죽녹원으로 간다. 대나무골테마공원이 광활하다면 이곳은 아기자기한 멋을 풍긴다.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기 드문 휴식처다. 영화 <알포인트>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돌계단을 오르니 뺨뺨하게 들어선 대숲 사이로 꼬불꼬불 산책로가 나 있다. 바람도 잠시 휴식에 들어간 오후 3시 무렵의 대숲길은 그윽하고 감미롭다. 대숲길 저 만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다. 대나무로 만든 정자(쉼터)에 앉아 하늘로 치솟은 대 줄기를 바라본다. 댓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다.

죽녹원 앞에는 담양천을 따라 느티나무, 엄나무, 개서어나무, 푸조나무, 읍나무, 벗나무, 갈참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등이 죽 늘어진 관방제림(官防堤林, 천연기념물 제366호)이 펼쳐져 있다. 수령 200년을 헤아리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월의 깊이를 말해준다. 관방제림은 지난 해 전국 아름다운 숲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숲길은 조선 중기 인조 때 성이성(成以性)이란 부사가 영산강 상류인 담양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고 독을 쌓은 것으로 풍치림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철따라 독특한 풍광을 보여주는 이 독길은 영화와 드라마, CF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그만이다.

대나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담양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 있으니 바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다. 중국이 원산지인 메타세쿼이아

(Metasequoia)는 미국에서 개량된 수종으로, 1970년대 초부터 묘목을 심어둔 것이 지금과 같은 울창한 가로수길이 되었다. 산림청이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했다.

담양에서 순창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는 담양이 자랑하는 드라이브 코스 1순위다. 공룡시대부터 살았다는 메타세쿼이아수 천 그루가 도로 양쪽으로 멋진 그림을 연출한다. 아무리 봐도 멋있는 길이라 사진 한 컷 담아둘 만하다. 인근에 있는 금성산성은 우리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해준다. 장성의 입암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꼽힌다. 산성 정상에 오르면 앞으로는 무등산과 추월산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건너다 보이고, 발 아래로는 담양들녘과 아름다운 담양호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담양호를 따라가는 29번 국도 왼쪽으로는 전라남도 5대 명산의 하나인 추월산(해발 731m)이 우뚝하다. 정상에 오르면 푸른 담양호가 두 눈 가득 들어온다. 담양호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

읍내에 있는 대나무박물관도 빠질 수 없는 순례코스다. 대나무와 죽세공예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전시실에는 대나무의 분포, 구조, 성장과정, 약효, 음식 등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돼 있다. 야외 죽세공예전수관 1층에 있는 죽제품 제작 체험 교실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팔랑개비, 붓통, 부채, 단소, 방석 등을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단체일 경우 평일에도 운영한다. 체험료(500-3000원)를 받는다. 죽물박물관(061-381-4111).

▶여행수첩(지역번호 061)=대중교통:강남터미널에서 담양행 고속버스 출발. 3시간 50분 소요. 대구에서 담양을 경유하는 광주행 직행버스 운행. 3시간 40분 소요. 광주에서 담양행 버스 20분 간격으로 운행. KTX 서울(용산)-광주행: 1일 8회 운행. 광주-서울(용산)행: 1일 8회 운행. 철도공사 예약센